★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를 현지에서 지도

★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진행



조선

주체110 (2021) 12

(785)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력사, 문화

편 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승 룡, 최일선

표 지: 삼지연시 포태동의 겨울
뒤표지: 리명수폭포 사진: 김성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를 현지에서 지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시건설사업이 결속되는것과 관련하여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하시기 위하여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3단계로 건설한 백두산밀영동지구, 리명수동지구, 포태동지구의 주택들과 교육시설, 문화후생시설들, 답사숙영소와 중흥농장지구를 비롯한 시안의 여러 대상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건설공사정형과 도시경영실태, 농사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건설대상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요구에 맞게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잘 살아나고 실용성, 다양성과 조형화, 예술화가 철저히 구현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4년간에 걸친 삼지연시건설투쟁속에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 위력과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자력번영, 자력부강해나가려는 우리 국가의 철석같은 의지와 자신심, 자립적 발전가능성이 실증되였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과 기준은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을 옳바른 방향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는 명확한 지침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지방이 변혁하는 새로운 시발을 열어놓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중흥농장지구에 건설된 특색있는 농촌문화주택들과 리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한폭의 그림같은 농촌진흥의 표준단위라고 말할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변된 삼지연땅의 인민들이 우리 당의 은덕을 노래하며 몹시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이 반기는 보람있는 일을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을 금할데 없다고, 인민들의 목소리가 곧 삼지연시건설사업에 대한 총평으로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거듭 기쁨을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사업이 당에서 구상하고 의도한대로 훌륭하게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향땅, 백두산이 솟아있는 정든 고장에서 문명하고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될 전체 삼지연시인민들의 행복과 복리를 따뜻이 축원하시였다.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서 앞서나가고있는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도,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당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정치일군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과 관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자》가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시기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소집한 당중앙의 의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 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인간개조의 선구자, 집단적혁신의 주인공이 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에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로동당의 3대혁명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과 3대혁명의 거대한 의의와 불멸의 생명력에 대하여 밝히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의 3대혁명화이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이며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리상사회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였으며 온 사회를 3대혁명화하기 위한 투쟁과업과 구체적인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유산이고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운동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3대혁명의 거세찬 불길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반드시 안아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회보고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하였다.

그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와 전국 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이후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가 3대혁명으로 들끓을 때 사회주의 건설전반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이며 우리 위업의 전진은 비상히 가속화될것이라고 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승리의 날을 앞당겨오려는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수행을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이 언급되였다.

대회에서는 전국의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하여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온 세계가 추모열기에 휩싸였던 주체100(2011)년 12월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다.

장장 반세기이상을 헤아리는 정치년륜을 새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20세기말의 랭전종식후 인류는 평화로운 세계를 기대했건만 제국주의세력은 도처에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를 리념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말살해치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1992. 1. 3.),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1993. 3. 1.),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 11. 1.) 등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리념의 정당성과 진리성, 과학성을 환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주체81(1992)년 4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라는 평양선언이 채택된 후 세계는 그이를 사회주의운동의 구원자, 수호자, 세계혁명의 태양으로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시기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100(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을 두터이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호상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인민의 공동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서로의 리해관계에 부합되게, 세계의 자주위업수행에 유리하게 개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7월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조선방문을 계기로 조로친선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고 여러 차례 로씨야를 방문하시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반동들의 강권정책에 타격을 주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국제관계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실 시대적 사명감을 안으시고 령활한 외교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하핵시설의혹》설과 《미싸일위협》설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외교공세를 승리에로 이끄시여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책동과 제재압력소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시였으며 유일초대국의 정책에 적극 추종하는 일본의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대일외교전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하여 주체91(2002)년 9월에 조일평양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유럽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0(2001)년 5월 조선을 방문한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공화국과 유럽동맹사이의 관계발전과 여러 국제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론리적이며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았던 당시 유럽리사회 의장을 비롯한 정객들은 비범한 예지와 해박한 식견으로 복잡한 국제정치문제들에 대하여 즉석에서 명철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경탄과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세계 여러 나라 지어 조선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가들도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오늘도 공화국을 사회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선도하여나가는 보루로 되게 하시고 인류를 자주의 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의 수호자,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글 강수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등소평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6월



호금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5월



웨. 웨.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8월



데. 아. 메드베제브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8월





피델 까스뜨로 루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과 상봉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3월



농 득 마잉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단독회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6(2007)년 10월



쭘말리 싸이냐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과 연회석상에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9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고이즈미 쥰이찌로 일본 총리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9월



빌 클린톤 미국 전 대통령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8월

희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저명한 인사들, 각계층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그이께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과 지성어린 선물들을 계속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105(2016)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뻬루공산당과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방글라데슈인민련맹에서 상장과 업적증서들을 드리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선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나이제리아의 두 도시들은 명예시민칭호를 수여해드리였으며 에쿠아도르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그이를 명예시민으로 모시였다.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왕국 국왕으로부터 최고훈장들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7월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벌가리아반파쑈동맹에서는 그이께 반파쑈운동명예활동가칭호를 수여해드리였으며 아프리카평화기금,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등에서는 평화상, 상장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국제준비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태양의 빛발을 배경으로 세계지도를 형상한 화원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모신 유화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을 드리였다.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대표단이 드린 유리꽃병, 쿠웨이트의 한 회사리사장이 드린 공예 《조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이후 드린 선물들은 110여점에 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린 훈장, 메달, 명예칭호와 선물들은 희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정화로 대를 이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글 김선경



몽골
평화금별훈장과 증서
주체91(2002)년 1월 28일



로씨야
《열정의 심장》 훈장과 증서
주체100(2011)년 2월 11일



에짚트
공화국목걸이훈장과 증서
주체72(1983)년 4월 4일



기네
민족공로대십자훈장과 증서, 정령문
주체94(2005)년 4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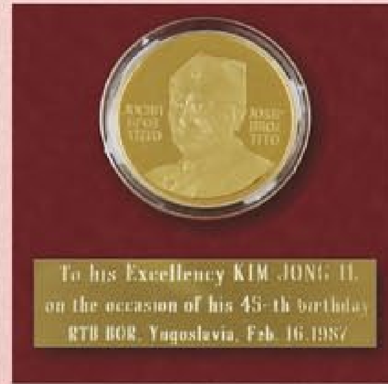


꾸바
련대성훈장과 증서
주체81(1992)년 1월 31일



캄보쟈
친선메달
주체62(1973)년 8월 10일





유고슬라비아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금메달
주체76(1987)년 2월 16일



꼴롬비아
쁠럭불가담운동창립 35돐 기념메달
주체85(1996)년 11월 13일



미국
미합중국 제42대 대통령취임식 기념메달
주체82(1993)년 3월 3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창립 50돐 기념메달
주체88(1999)년 4월 21일



레바논
공산당창건 55돐 기념메달
주체69(1980)년 10월 10일



로씨야
《1994년 명인》 메달과 증서
주체83(1994)년 12월 30일



프랑스
국회상원메달
주체76(1987)년 9월 21일



도이췰란드
에른스트 뗄만생일 100돐 기념메달
주체74(1985)년 8월 24일



뻬루
아레끼빠시 열쇠와 명예시민증서
주체87(1998)년 1월 30일





에꽈도르
끼또자치종합대학 명예박사
(증서, 결정서, 박사복, 모자, 메달)
주체90(2001)년 3월 27일



은다반, 은고뿌, 은고뿌받치개
하페즈 알 아싸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주체83(1994)년 12월



자수정
삼 누죠마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위원장 겸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주체89(2000)년 11월



금속차그릇일식
방글라데슈 민족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총비서
주체89(2000)년 2월



수정공예 《평화의 상징》
벌가리아 훼스또대표단
주체91(2002)년 5월



금공예 《잉어》
싱가포르무역개발리사회대표단
주체85(1996)년 3월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드리는 선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6월



동불상
네팔공산당 총비서
주체79(1990)년 10월



금공예 《돛배》
뽀르뚜갈 노르페스카스회사 사장
주체83(1994)년 11월



국방력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0(2011)년 12월 30일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날이다.

이 력사적인 날과 더불어 흘러온 지난 10년은 사회주의조선을 이끄시는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에 의하여 반만년의 민족사에 특기할 국방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격동의 나날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주체100(2011)년 조선인민이 당한 민족의 대국상이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였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을 종식시키실 억척의 결단을 내리시였다.

원쑤들의 침략위협이 존재하는한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불패의 국방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면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혁명무력강화의 전성기를 마련하시여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오시였다.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에도 다 가보아야 한다시며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병사들에게 어버이사랑을 안겨주시는 그이의 헌신에 떠받들려 전군이 최고사령관과 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자라났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실 때마다 언제나 군인들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 모든 군인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만능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 나날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였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군사적 침략책동이 계속 로골화되여온 속에서도 조선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은것은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적들의 침략책동도 단숨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덕택이였다.

령장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불가항력적인 추진력이 되여 각이한 첨단무장장비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혁명령도의 10년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군대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4월



명포수들로 자라난 웅도방어대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7월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을 조직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2월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군부대들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2월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상사람들이 상상할수도 예측할수도 없는 매우 짧은 기간에 핵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여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을 억척으로 다지시는 한편 적대세력의 무분별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과감한 군사적대응전략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의지가 빛발치는 대응전략들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한해한해를 장식하는 위대한 승전의 축포성이 되여 세상을 진감시켰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과감한 공격전과 령활무쌍한 지략



어뢰정에 오르시여 해병들의 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2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비행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10월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 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3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대륙간탄도미싸일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8월

2017년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실현


주체106(2017)년 3월 18일
새로 개발한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주체106(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주체106(2017)년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시험발사 완전성공

주체105(2016)년 4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혁명령도의 10년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4월

으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내며 년년이 새겨오신 자랑찬 승리의 력사에는 2015년 8월의 무전무혈대승도 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우리 식의 선제공격방식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라는 불벼락선언과 더불어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막강한 군력을 과시한 2016년과 2017년의 자랑찬 로정도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정녕 주체조선이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승리는 국가의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력사의 기적, 영웅조선의 신화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였다.

이날의 선언은 병진의 험난한 로정에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온 영웅적조선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였음을 알리는 엄숙한 선언이였고 대대손손 부강번영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날을 축복하는 긍지높은 선언이였다.

지난날 화승총조차 변변히 없었던탓에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하고 렬강들의 흥정판에 올라 란도질당해야만 했던 조선이 오늘은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존엄높은 나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와 민족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보검을 틀어쥔 위대한 나라로 되였던것이다.

글 박의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323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이 솟아있는 량강도 삼지연시가 완전히 변모되였다.

주체106(2017)년 12월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완전히 새롭고 통이 크게 전개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지대의 본보기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리고 살림집 및 공공건물설계로부터 전력체계구성과 원림록화조성에 이르는 방대한 건설형성안들을 일일이 지도해주시였다.

공사과정은 도시구획형성과 건축에서 민족성과 현대성,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을 잘 살리고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과정이였다.

삼복철의 폭염과 한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 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2년전 삼지연시 읍지구에 펼쳐졌던 천지개벽은 오늘날 시안의 전체 지역으로 파급되였다.

3단계건설을 통하여 시안의 여러 지구들과 농장들이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전변되였다.

4년간에 걸친 삼지연시건설과정에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과 자력번영, 자력부강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철석같은 의지와 자신심, 자립적 발전가능성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사진 리광성, 홍광남, 김성철
글 최광호



























천연들쭉제품

Bog Bilberry Products of Mt Paektu

순환기계통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물질대사촉진과 약물중독해제 등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것으로 알려진 들쭉은 량강도의 특산물이며 무봉과 신무성을 비롯한 삼지연시의 도처에서 널리 재배되고있다.

그리고 시의 베개봉기슭에는 2년전 새로 일떠선 삼지연들쭉음료공장이 있다.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통합조종실에서의 실시간적인 감시, 조종하에 진행되고있다.

이곳에서는 들쭉단물, 들쭉발효초단물을 비롯한 음료들, 유명한 백두산들쭉술과 함께 들쭉단졸임, 들쭉단묵, 들쭉단졸임소빵 등 여러가지 식품들이 생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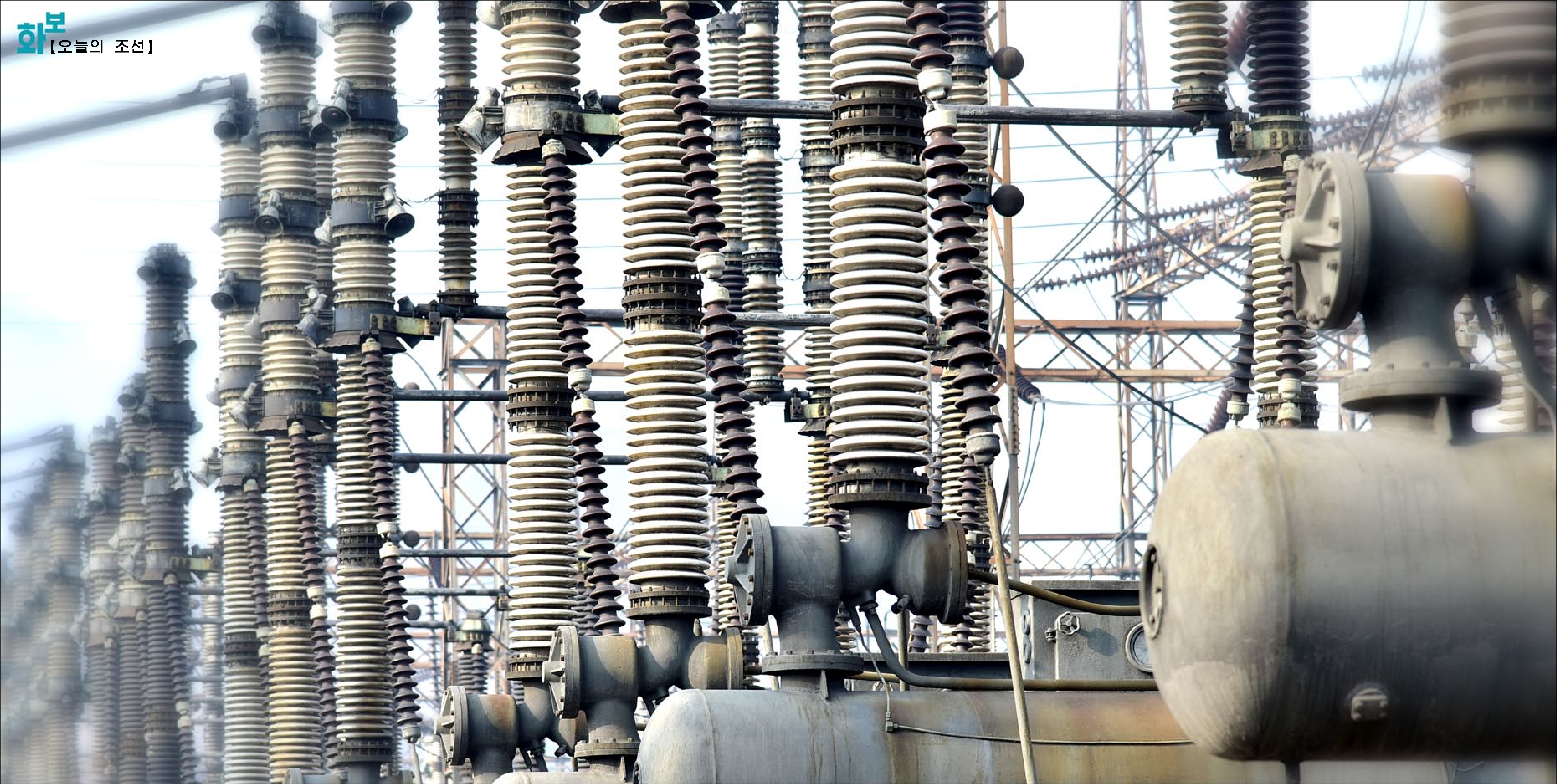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이름난 백두산들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공장제품들에 대한 높아가는 수요와 더불어 더욱 커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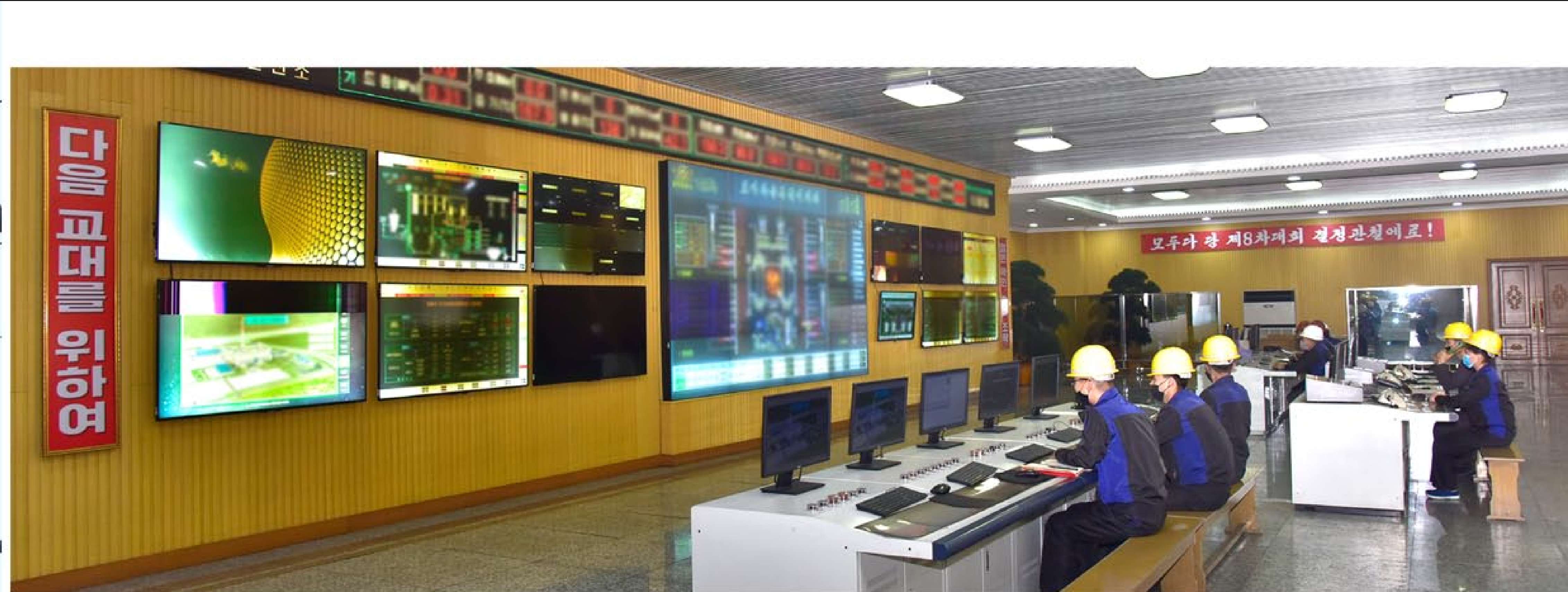






전력생산으로 들끓는 북창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기업소의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설비들의 개건현대화를 다그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진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청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전력증산의 앞장에 서있다.

이곳 조작공, 운전공들은 담당기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보이라계통의 공기조절을 겨울철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설비관리를 기술규정대로 짜고들어 모든 호기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3직장과 4직장, 5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설비들에 대한 점검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이라와 발전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자력갱생직장, 소재직장들에서 설비보수에 쓰이는 각종 자재 및 소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는 속에 발전설비들의 대보수 및 중보수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공업기술연구소와 전기시험소의 기술자들도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현대적으로 개조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계속 힘차게 울리고있다.

올해 련합기업소에서는 모든 직장, 작업반들에서 생산공정의 기술지표와 표준조작법을 갱신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그와 함께 많은 설비들을 개조, 원상복구하여 모든 공정이 만가동, 만부하를 걸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 기업소의 전체 근로자들은 설비집중보수를 끝낸 기세로 한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생산활동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원료직장에서 기대관리를 깐지게 하여 건조로 등의 가동률을 훨씬 끌어올렸으며 가스화공정을 맡은 직장들에서는 가스발생로의 운영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1, 2합성직장의 로동자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설비조작을 능숙하게 하여 암모니아와 혼합가스의 질과 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뇨소직장과 질안직장에서는 교대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설비들과 장치물들에 대한 기술관리에 힘을 넣어 매일 많은 비료를 생산하고있다.

증기직장과 화학기계분공장, 보수분사업소 등에서도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보이라들의 정상운전과 설비부속품생산, 수리보수 등을 따라세움으로써 비료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방대한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최광호

북방의 대규모온실농장

- 중평남새온실농장을 찾아서 -



주체108(2019)년 12월에 조업한 중평남새온실농장은 도안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평양-청진행 렬차를 타고 함경북도의 경성역을 가까이 하느라면 푸른 조선동해를 배경으로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온실《바다》가 나진다.

도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취해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조치에 따라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320동에 달하는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가진 중평남새온실농장이 일떠서 조업한것은 2년전 12월이다.

그때부터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생산량을 부단히 늘여 남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곳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이 현대화된 온실남새생산공정을 관리운영하는 기술을 빨리 터득하도록 하면서 생산조직을 짜고들고있다.

기술자들속에서 북부지구의 온실특성에 맞는 작물선정 및 재배방법을 확립하는데 힘을 넣고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들과 영양학적지표와 맛이 더 좋은 우량품종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그 과정에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구축되고 여러가지 선진적인 재배방법이 개발, 도입되였으며 병해충감별 및 구제대책연구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수경온실들에서는 남새별로 생육에 적합한 온도, 습도, 탄산가스농도 등을 보장하는데 주의를 돌리고있다.

모든 종업원들속에서 과학농사기풍, 서로 돕고 이끄는 일본새가 높이 발휘되는 속에 오이, 도마도, 배추, 무우를 비롯한 신선한 남새를 수확하는 풍경이 달마다 펼쳐지고있다.

하여 중평남새온실농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남새들에 대한 도내 인민들의 호평은 계속 이어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명


15
14
13







중평남새온실

숲을 가꾸어가는 사람들

평안남도 회창군이 최근 산림이 울창한 곳으로 전국에 소문났다.

사방 아득하게 펼쳐진 무성한 숲들은 보는 사람마다 찬사를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1990년대중엽이후 이곳의 산림면적도 적지 않게 줄어들었었다. 하여 새세기에 들어서면서 군의 일군들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주민들을 산림복구사업에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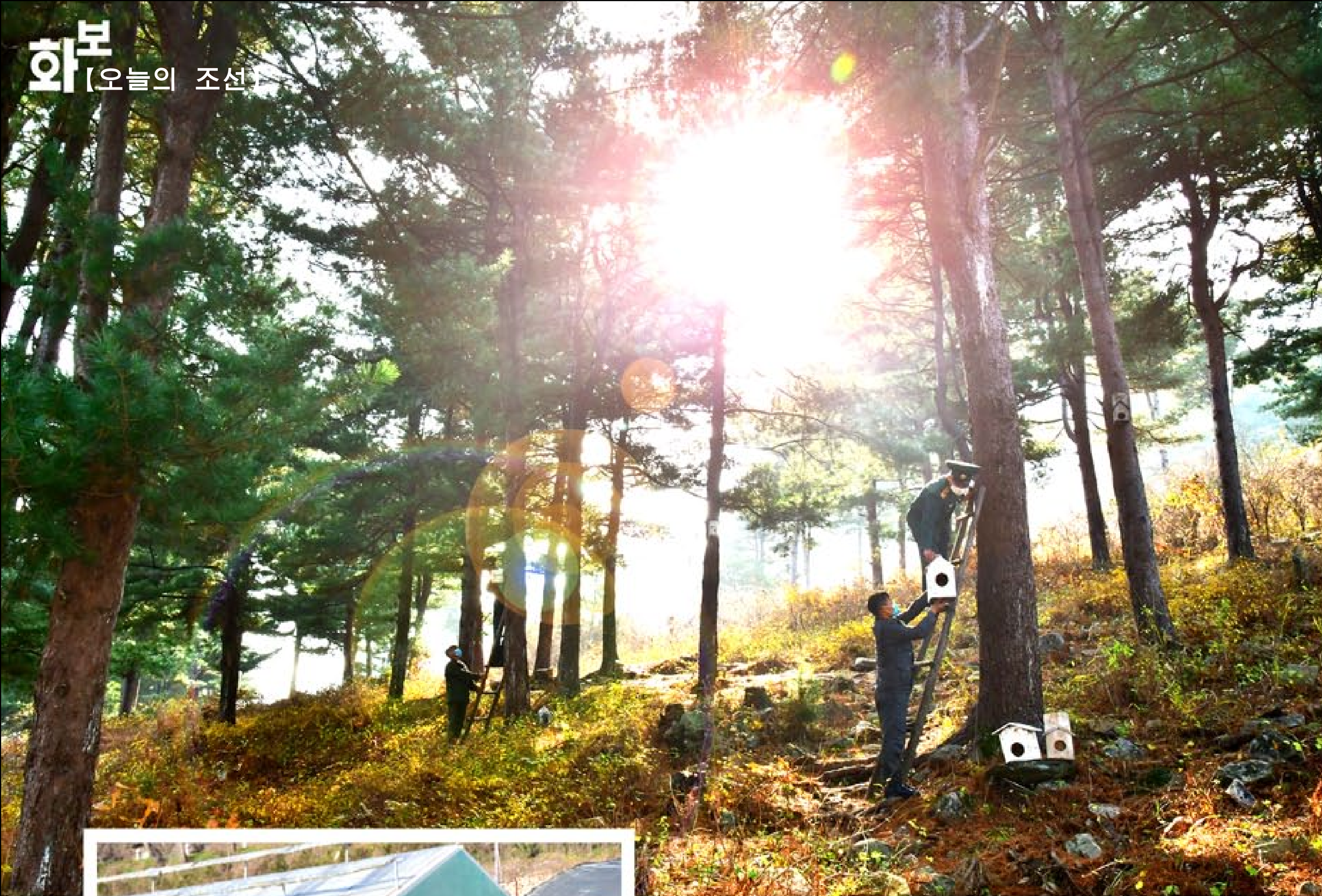
우선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을 발동하여 양묘직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봄과 가을철의 식수월간들에 심을 각종 나무모들을 해마다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산림조성계획을 정확히 세웠다.

이곳 산들은 대체로 바위와 벼랑이 많고 경사가 심하며 땅깊이가 얕은데가 적지 않다.

일군들은 지대적특성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흙층이 깊은 곳을 1차식수대상지로 정하고 이깔나무를 비롯하여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게 하였다. 그리고 흙층이 얕거나 바위가 많아 구뎅이를 깊이 파고 흙을 깔아야 할 곳은 2차식수대상지로 정하고 소나무와 같이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수종이나 개암나무를 비롯한 키낮은 수종을 심게 하였다.

적지를 바로 정하고 산림을 조성하니 일률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에 비하여 사름률과 수림화속도가 높아졌으며 사람들마다 긍지와 신심을 안고 더욱 분발하게 되였다.

군에서는 해마다 산림복구계획을 국가기준보다 1. 3배로 높게 세우고 집행해오고있다.

하여 최근 10여년동안에만도 1만 수천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으며 볼품없는 뙈기밭들이 널려있던 산발들이 마침내 무성한 숲으로 변모되게 되였다.

그와 함께 군중적인 산림보호체계가 세워져 산불을 비롯한 산림파괴현상이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도 회창군사람들은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자기 고장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그리하여 회창군의 산림은 해마다 더욱 울창하게 변모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최광호





신지동리 산림감독원 김광훈은 흙보다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한 골짜기와 산발들로 이루어진 담당림지에 숲사이양묘장을 꾸려놓고 16년동안 가족과 함께 근 800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다.



가운리 산림감독원 리영남은 20여년을 하루같이 산판에 올라 나무를 심고 애지중지 관리하여오면서 1 300여정보에 달하는 담당구역의 산림조성상태를 자기의 손금처럼 명확하게 파악하고있다.







중앙동물원 수족관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중앙동물원이 자리잡고있다.

호랑이가 방불하게 형상된 입구를 통과한 참관자들의 눈길이 제일먼저 가닿는 곳은 다리들이 가로세로 뻗어간 못가너머에 일떠선 수족관이다.

연건축면적이 5 300여m²에 달하는 수족관에는 물량이 900m³인 수중동굴과 300m³인 상어수조를 비롯한 대형수조들을 비롯하여 총물량이 2 000m³(그중 바다물량이 1 500m³)에 달하는 32개의 수조가 있다.

그리고 그속에서 근 250종에 5 700여마리의 물고기류와 량서파충류, 무척추동물류들이 서식하고있다. 바다물고기만도 90여종에 근 2 000마리나 된다.

내부의 벽과 바닥이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있어 마치 물속세계로 들어서는듯한 느낌을 주는 수족관의 초입에는 민물고기수조들이 있다.

철갑상어와 초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온대지역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아마조나스병어, 전기뱀장어, 피라니아 등 열대지역의 민물고기들을 세세히 관찰하느라 사람들은 시간가는줄 모른다.



개개마다 특색있는 수조들의 앞을 절로 더디여지는 걸음으로 지난 참관자들은 이름그대로 산수의 풍경을 옮겨놓은듯싶은 자연풍치구역의 아름다움을 부감하고나서 4억만년전의 바다밑을 형상한 6m길이의 동굴을 통과한 다음 20m길이의 수중동굴에 이르게 된다.

수족관참관로정에서 제일이라고 할수 있는 수중동굴에서 받은 유쾌하고 흥그러운 감정은 바다가를 형상하고 물과 접촉할수 있어 접촉수조라고 하는 곳을 지나 푸른바다거부기를 비롯한 거부기들이 자기 모습을 과시하는 구역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출구를 나서면서 참관자들은 희귀종의 펭긴들도 볼수 있다.

곳곳에 물고기에 대한 상식판들과 국내의 수산자원 분포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과 관련한 알림판들도 있는 수족관은 문화휴식장소인 동시에 특색있는 교육거점이기도 하다.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로 항상 흥성이는 중앙동물원의 수족관이다.





사진 홍광남
글 강수정



수중세계를 떠날줄 모르는 참관자들

수족관에는 근 250종에 5 700여마리의 물고기류와 량서파충류, 무척추동물류들이 서식하고있다.
바다물고기만도 90여종에 근 2 000마리나 된다.


최강존


박의성


최태정

제7차 아시아어린이 그림전시회에서 우승

조선의 어린이들속에는 뛰여난 재능을 지닌 재간둥이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는 지난 9월 중국의 료녕성 본계시에서 진행된 제7차 아시아어린이그림전시회에 참가한 어린이들도 있다.

《건강, 친선, 평화》의 주제로 진행된 전시회에 출품된 13개 나라 어린이들의 작품 500여점가운데서 조선어린이들의 그림이 모두 입선되거나 우수작품으로 평가되였다.

사진 리성익
글 강수정



최태정 12살 《초원의 친구들》 (1등)

관찰력과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다. 알고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을 찾을 때까지 물어보고 파고드는 성미이다.

그림그리기와 함께 수학문제풀이를 좋아하는 그의 꿈은 미래의 건축가가 되는것이다.



박의성 10살 《심판》 (2등)

부모들도 몰랐던 그의 미술소질을 발견하여 계발시킨것은 유치원시절의 담당교양원이라고 한다. 몇달전 부모와 함께 지방에서 평양으로 이사왔는데 벌써 전교적인 모범학생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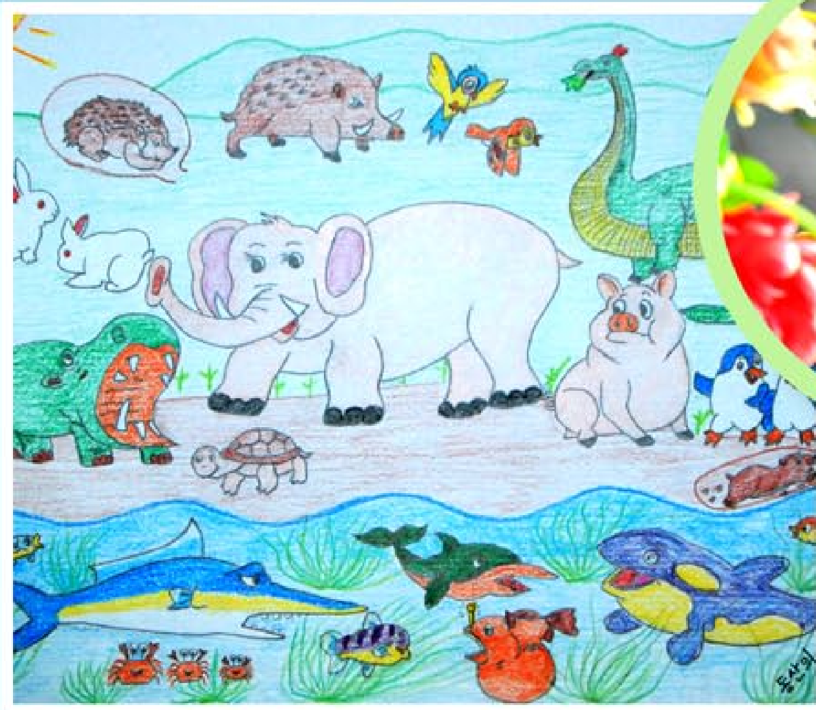


최강존 11살 《맑은 하늘은 우리거야》 (2등)

유치원시절부터 미술신동으로 널리 알려졌다.

주제가 다양한 그의 작품들은 전문가들속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에 망라되여 재능을 더욱 련마하고있다.




김위현 7살 《동산의 다정한 동무들》(3등)

2살때부터 만화영화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모든 생활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올해 소학교 1학년생이 되면서 일기쓰기를 시작하였는데 거의 모든 장이 그림으로 채워져있다.





리려진 8살 《어서 오세요》(3등)

남다른 기억력의 소유자이다.

5살때 700여개의 주패장을 정확히 기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앞으로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여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릴 꿈을 안고있다.




최정경 12살 《무지개, 꿈, 미래》 (3등)

소녀성악가이기도 하다. 노래를 잘 불러 소학생때에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무대에 오른적이 있다. 인사성도 밝아 학교나 마을에서 늘 칭찬을 받는다.




최원흥 6살 《의사놀이》(3등)

깜찍스런 손으로 그린 그림도 그렇지만 색진흙으로 빚는 조각품은 더 신통하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제13차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특등을 하였다.



자연 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한다

오늘날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이 산생시킨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는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는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에네르기개발사업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크고작은 하천이 많은 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결과 중앙과 각 도들에서 수력에 의한 에네르기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자연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과 관련한 여러 연구단위의 성과들을 적극 도입하여 태양빛과 풍력, 조수력, 지열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에네르기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활동이 모든 도, 시, 군들에서 활발히 추진되고있다.

평양시에서만도 려명거리에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가 도입되였으며 과학기술전당, 목란광명기술사, 대성산샘물공장, 해방산호텔을 비롯한 많은 기관, 기업소들이 자체의 특성에 맞게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면서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얻고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록색에네르기의 개발도입은 지방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적극화되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리진범













동심의 문을 열어



교육도서출판사 아동지능교육도서연구소 소장 장대길은 유명한 아동그림책창작가중의 한사람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식을 둔 부모들치고 그의 이름을 모르는이가 별로 없을 정도이다.

장대길은 주체63(1974)년 7월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신동에서 태여났다.

유전적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그리고 생각이 엉뚱하고 무엇이나 제 손으로 만들어보기를 좋아했다.

5살때는 집에 있던 옷감을 무작정 잘라서 여러 동물모양들을 한가득 만들어놓은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너무 방불해 부모들도 욕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년시절 장대길은 금성청년출판사 부장이였던 아버지가 가져오는 그림책을 자주 보았다.

《나도 앞으로 크면 아버지처럼 멋진 그림책을 만들래요.》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무척 대견스러웠으나 그후 장대길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어린이들의 기호와 심리에 맞게

14살에 평양미술대학 전문부에 입학한 그는 대학에 진급하여서는 출판화학부 아동미술학과에서 공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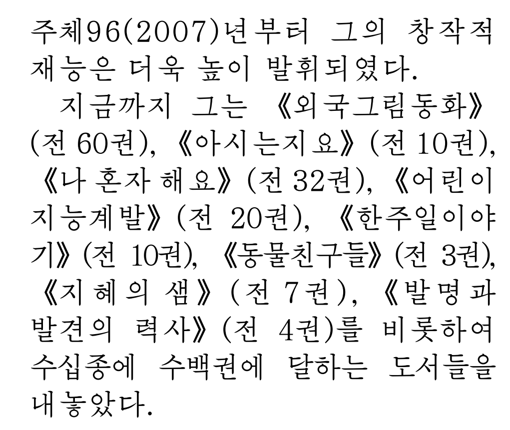
당시 어떤 교원들은 그의 재능에 탄복하면서 전공을 바꾸지 않겠는가 의향을 묻기도 하였다고 한다.

허나 장대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체85(1996)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 교육기관의 연구사로 다년간 일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의 재능을 더욱 련마하면서 만화창작과 그림책편집을 위한 기초를 쌓아나갔다.

아버지의 경험을 자주 들으며 어린이지능계발에 대한 안목을 키워갔으며 시안의 많은 유치원들을 찾아다니며 교양원들의 의견도 참작하였다.

주체89(2000)년에 전 10권으로 된 아동그림책 《너도 나도 하하하》의 제1권을 내놓아 독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때부터 그의 작품들은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교육도서출판사 기자로 사업한 주체96(2007)년부터 그의 창작적 재능은 더욱 높이 발휘되였다.

지금까지 그는 《외국그림동화》(전 60권), 《아시는지요》(전 10권), 《나 혼자 해요》(전 32권), 《어린이지능계발》(전 20권), 《한주일이야기》(전 10권), 《동물친구들》(전 3권), 《지혜의 샘》(전 7권), 《발명과 발견의 력사》(전 4권)를 비롯하여 수십종에 수백권에 달하는 도서들을 내놓았다.

20여년간의 도서창작과정에 만화창작분야에서 넓은 안목을 지니게 된 장대길은 오늘 평양미술대학에 자주 초빙되여 강의를 하군 한다.

아동심리학에도 밝은 장대길에게 시안의 수많은 부모들과 교양원들도 자주 찾아오고있다.

사진 리성익
글 강수정











김치

조선의 민족음식

김치는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민족의 고유한 부식물이며 특색있는 음식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금과 같이 귀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금채》라고 불리우다가 점차 그 말소리가 바뀌여지면서 김치로 되였다고 한다.

건강식품 김치









김치는 어느 때 만들어먹는가에 따라 크게 봄김치, 여름김치, 가을김치, 겨울김치로 나눈다.



세계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김치는 조선의 전통음식의 하나이다.

김치는 담그는 계절과 방법, 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매우 많지만 선참으로 꼽는것이 늦가을에 만드는 김치이다.

김치는 싱싱한 배추와 무우를 기본재료로 하고 거기에 고추, 파, 마늘, 생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양념과 과일, 물고기, 젓갈 등을 섞어 젖산발효시킨것으로서 오랜 세월 겨울철의 기본부식물로 되여왔다.

하여 선조들은 김장을 한해의 중요한 일로 여기였으며 그 어느 지역의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겨울을 앞두고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으며 대를 두고 전수해오는 방법과 기술을 적용하면서 맛있고 특색있게 만들기에 품을 아끼지 않았다.

식생활의 다양성으로 속성음식을 비롯한 음식종수가 많이 늘어나고 김치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된 오늘에도 제 손으로 김치를 직접 담그어먹는 민족풍습은 집집마다 연연히 이어지고있다.

해마다 겨울을 앞둔 11월은 흥그러운 김장철이다.

집집마다 깨끗이 다듬은 배추를 절구었다가 씻어 그 갈피마다에 양념소를 넣고 포개여 독안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김치를 만들 때면 이웃이나 친척들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아와 일손을 돕는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김장을 담그는 풍습이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김치담그기가 끝난 다음 자기 가정에서 만든 김치나 양념을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에게 보내거나 일터에 가지고나와 모두가 맛을 보며 평가하는 풍속도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오고있다.

모든 집들에서 공통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김치담그기과정이 그대로 서로의 화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되고있는것이다.

조선의 김치담그기풍습은 주체104(2015)년에 진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되였다.

사진 리성익, 방은심
글 리진범





김치생산의 공업화가 도입되여 여러가지 김치제품들이 사계절 생산되고있다.



낸곳: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